

## 한국 불교 문헌설화의 양상과 성격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Buddhist Written Folktales

---

저자 (Authors)	김기종 Kim, Ki Jong
출처 (Source)	<a href="#">동악어문학 67</a> , 2016.5, 275-309(35 pages) <a href="#">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67</a> , 2016.5, 275-309(35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악어문학회</a> Dong-ak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705626">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705626</a>
APA Style	김기종 (2016). 한국 불교 문헌설화의 양상과 성격. 동악어문학, 67, 275-30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19 11:2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한국 불교 문헌설화의 양상과 성격\*

김기종\*\*

## || 차례 ||

1. 문제 제기
2. 고려시대 문헌의 불교설화와 그 유형
3. 조선시대 문헌 소재 불교설화의 구도와 전개
4. 불교 문헌설화의 내용적 경향성과 그 의미

##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 불교설화의 시대적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 문헌의 불교설화는 제재 및 중심 내용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승려의 신이한 행적' 유형은 치병·용궁강설·신이한 죽음의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모티프는 '고승'을 드러내는 징표로 기능한다. '불·보살상과 경전의 영험' 유형은 불·보살에게 기도하거나 경전을 독송·서사한 결과로 인해 일어난 신이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영험의 주체로 설정되어 있는 관음보살은 승려의 모습으로 화현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

'불연국토와 불·보살의 상주'의 경우는, 신라의 국토를 부처와 인연이 깊고, 불·보살이 항상 머무르면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61-A00008)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wkiji@hanmail.net

리고 ‘현신성불’의 유형에서는 처자가 있었던 노힐부득·달달박박과 여자 중 육면이 현재의 살아있는 몸 그대로 부처가 되고 있다. ‘부처의 나라’를 형상화하고 있는 불연국도와 불·보살 상주의 유형에 이어, 이러한 형상화의 귀결로서 ‘신라의 부처’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의 나라’와 ‘신라의 부처’는 조선시대 문헌의 사찰연기설화와 고승설화에 서도 단절 없이 나타나고 있다. 곧 범어사·관음사·보덕굴의 연기설화에서 금강산·성덕산·금강산은 불·보살이 머무르고 있는 성지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리고 홍장·성덕과 진묵은 불·보살의 현신으로, 보덕은 살아있는 부처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려와 조선시대 문헌의 불교설화 모두 불·보살의 현신과 이 땅의 부처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들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부처와 보살이 평범한 군중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이 곳’에서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불교 문헌설화는 ‘부처의 나라’와 ‘이 곳의 부처’를 형상화하고 있는 내용적 경향성을 보인다고 하겠다. 이러한 특징은 설화의 본질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을 상기할 때, 설화 전승의 주체인 승려와 불교신자, 더 나아가 민중들의 ‘불국’과 ‘성불’에 대한 지향 내지 염원이 투영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곧 한국 불교설화의 형성·전파·향유 주체들의 관심과 지향이 현실의 ‘이 곳’과 ‘성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문주제어 : 불교설화, 문헌설화, 삼국유사, 법화영험전, 불전설화, 사찰연기설화, 불국, 성불.

## 1. 문제 제기

지금까지 불교설화에 관한 연구는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국문학·불교학·민속학·국사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불교설화와 승려 관련 구전설화에 그 논의가 집

중되어 왔고, 여타의 텍스트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논의의 내용에 있어서도 대체로 설화 각편의 성격과 의미 파악에 그치고 있다. 특히 불교설화에 관한 통시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한국 불교설화의 문학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문헌에 수록된 불교설화의 양상과 그 성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를 위해서는 검토 내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먼저, 불교설화의 개념 규정에 관한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불교설화를 ‘불교에 대한’ 또는 ‘불교와 관련된’ 설화로 규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몇몇 연구자의 경우는 불교 또는 승려에 대한 비방적·부정적인 내용의 설화까지 불교설화로 다루고 있다.<sup>1)</sup> 여기에서, 불교설화의 개념에 관한 황폐강과 조동일의 견해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곧 황폐강은 “불교설화는 민중교회의 방편으로 흥미 있는 이야기를 통해 부처의 참모습을 마음 속에 형성시켜 마침내 귀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목적으로 생겨난 설화”<sup>2)</sup>로 규정하였고, 조동일은 “불교설화는 삶의 시련과 결단을 불교와 관련시켜서 다루는 설화”<sup>3)</sup>라고 보았다. 전자가 ‘민중의 교회’라는 불교설화의 ‘목적’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후자는 불교설화의 ‘내용’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두 견해 모두 불교설화가 불교의 교리 내지 사상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불교설화’를 불교의 교리 내지 사상을 형상화하고 있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

- 
- 1)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5권,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최래옥, 「한국 불교설화의 양상」, 『한국의 민속과 문화』 3권, 경희대 민속문화연구소, 2000; 박상란, 「조선시대 문헌 소재 불교설화의 양상과 의미」, 『불교학보』 43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5.
  - 2) 황폐강,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5, 308면.
  - 3)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89, 262면.

라, 불교 및 승려를 부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설화뿐만 아니라, 사찰이 이야기의 단순한 배경으로 등장하거나 승려가 소재 차원에 그치고 있는 설화들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다음으로, 불교설화의 유형 설정 및 분류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불교설화의 유형 분류가 시도되어 왔다. 곽황패강은 신라시대의 불교설화를 다음과 같은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1) 業報輪廻, (2) 菩薩行化, (3) 靈異, (4) 求法, (5) 功德, (6) 名稱緣起, (7) 往生 등이 그것이다.<sup>4)</sup> 그리고 김현룡은 문헌설화만을 대상으로 (1) 法僧, (2) 異僧, (3) 靈異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sup>5)</sup> 김용덕은 구전설화와 문헌설화를 포함한 한국 불교설화를 (1) 名稱緣起 (2) 求法傳教 (3) 淨土往生 (4) 祈禱發願 (5) 靈驗異蹟 (6) 因果應報 (7) 布施功德 (8) 孝善勸化 (9) 持戒忍辱 (10) 護國龍神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sup>6)</sup> 최래옥과 박상란의 경우는, 각각 구전설화와 조선시대의 문헌설화만을 분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자는 (1) 조형물과 자연물에 관한 설화, (2) 승려에 관한 설화, (3) 교리면에 관한 설화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sup>7)</sup> 후자는 (1) 승려, (2) 사찰, (3) 영험, (4) 신앙 등의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sup>8)</sup>

이와 같은 논의들은 분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한 편의 설화가 여러 유형으로 중복 분류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인다. 또한 몇몇 연구자의 경우는 분류의 항목만을 설정하고 있을 뿐, 이에 해당하는 설화 작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고려

4) 황패강, 앞의 책, 56-171면.

5) 김현룡, 앞의 책, 26면.

6) 김용덕·윤석산, 「한국 불교설화의 형성과 전승원리」, 『한국언어문화』 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86, 17면.

7) 최래옥, 앞의 논문, 336-373면.

8) 박상란, 앞의 논문, 68-81면.

시대 문헌의 불교설화를 제재 및 중심 내용에 따라 (1) 승려의 신이한 행적, (2) 불·보살상과 경전의 영험, (3) 불연국토와 불·보살의 상주, (4) 정도왕생과 현신성불의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 글은 지금까지 언급한 불교설화의 개념과 유형 분류를 전제로, 고려시대 문헌 소재 불교설화의 유형과 그 성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문헌의 불교설화를 佛典설화·사찰연기설화·고승설화로 나누어 그 구체적인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불교 문헌설화의 내용적 경향성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고려시대 문헌의 불교설화와 그 유형

주지하다시피 불교설화를 수록하고 있는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문헌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불교설화가 실려 있는 고려시대의 문헌으로는 覺訓의 『海東高僧傳』(1215), 崔滋(1188~1260)의 『補閑集』(1254), 一然(1206~1289)의 『삼국유사』, 了圓의 『法華靈驗傳』(14세기 후반) 등이 있다. 이들 문헌 외에, 閔漬(1248~1326)가 지은 기문인 『金剛山楡岾寺事蹟記』(1297)와 『寶蓋山石臺記』(1307)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상의 문헌에 수록된 불교설화는 대부분 삼국 및 신라시대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삼국유사』의 설화들은 거의 모두가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기존의 논의에서는 『삼국유사』 소재 설화들을 ‘삼국시대 설화’ 또는 ‘신라불교설화’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sup>9)</sup> 그러나 『삼국유사』의 설화들을 그 시대적인 배경과 인물만을 기준으로, 삼국시대 및 신라의 설화 형태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나의 예로, 편찬연대가 확실한 조선시대 설화집에 실린 동일인물 관련 설화

9) 대표적인 것으로 조동일(앞의 책)과 황폐강(앞의 책)을 들 수 있다.

는, 2백 년이나 3백 년의 선후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sup>10)</sup>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문헌에 전하는 이들 설화는 삼국 및 신라시대의 ‘원형’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고려인의 인식이 일정 정도 반영된 산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sup>11)</sup> 이 장에서 신라와 고려의 불교설화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려시대 문헌의 불교설화 작품들을, 앞의 1장에서 제시한 ‘유형 분류’에 대응시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sup>12)</sup>

- (1) 승려의 신이한 행적(33편) : 「曇始」, 「圓光」, 「安舍」(이상 『해동고승전』) 「默行者」, 「虎僧」(이상 『보한집』)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寶藏奉老 普德移庵」, 「前後所將舍利」, 「圓光西學」, 「寶壤梨木」, 「良志使錫」, 「惠宿」, 「惠空」, 「慈藏定律」, 「元曉不羈」, 「義湘傳教」, 「眞表傳簡」, 「關東楓岳鉢淵藪石記」, 「心地繼祖」, 「賢瑜珈 海華嚴」, 「密本摧邪」, 「惠通降龍」, 「朗朗神印」, 「月明師兜率歌」, 「融天師彗星歌」, 「正秀師救水女」, 「朗智乘雲 普賢樹」, 「永才遇賊」, 「迎如師」, 「念佛師」, 「眞定師孝善雙美」(이상 『삼국유사』) 「海龍請聞」, 「龍天請講」(이상 『해동법화전』)
- (2) 불·보살상과 경전의 영험(19편) : 「三所觀音衆生寺」, 「栢栗寺」, 「敏藏寺」,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 「調信」(이상 『삼국유사』) 「黑風吹其船舫」(『법화영험전』, 이상은 ‘불보살상의 영험’) 「學士權適」(『보한집』) 「善律還生」, 「惠現求靜」(이상 『법화

10) 김현룡, 앞의 책, 11-12면.

11) 남동신, 『『삼국유사』의 史書로서의 특성』, 『불교학연구』 16호, 불교학연구회, 2007, 67면에서는, “고려시대에 작성된 자료는 더 이상 ‘고대 문화의 원형’일 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고대 문화에 대한 고려시대인들의 인식의 반영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금석문이나 고문서와 같은 1차 사료가 아니라, 구비전승을 채록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였다.

12) 참고로, 이 네 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9편의 불교설화는 다음과 같다. 「文虎王法敏」·「原宗興法 厭觸滅身」·「興輪寺壁畫 普賢」·「靈鷲寺」·「皇龍寺九層塔」·「五臺山文殊寺石塔記」·「仙桃聖母隨喜佛事」·「金現感虎」·「大城孝二世父母」(이상 『삼국유사』)

영험전』) 「通交二世之爺孃」, 「天帝邀經而入藏」, 「帝親試通」, 「深敬辯山人之精書」, 「堪歌崔牧伯之慶會」, 「光明出於口角」, 「菌菖生於舌根」, 「珍禽顯瑞」, 「亡妹告徵」(이상 『법화영험전』)

- (3) 불연국토와 불·보살의 상주(23편) : 「阿道」(『해동고승전』) 「阿道基羅」, 「迦葉佛宴坐石」, 「遼東城育王塔」, 「金官城婆娑石塔」, 「高麗靈塔寺」, 「皇龍寺丈六」, 「魚山佛影」, 「蛇福不言」(이상 『삼국유사』) 「金剛山楡岾寺事蹟記」(이상 ‘불연국토’) 「武王」,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 「生義寺石彌勒」,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臺山五萬眞身」,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臺山月精寺五類聖衆」, 「鑿藏寺 彌陀殿」, 「憬興遇聖」, 「眞身受供」, 「緣會逃命 文殊岾」(이상 『삼국유사』) 「寶蓋山石臺記」, 「顯比丘尼身」(『법화영험전』)

- (4) 정도왕생과 현신성불(7편) :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 「郁面婢念佛西昇」, 「廣德 嚴莊」, 「包山二聖」, 「布川山 五比丘」(이상 『삼국유사』) 「寶岩徒之或講或疑」, 「蓮華院之若讀若說」(이상 『법화영험전』)

## 2.1. 승려의 신이한 행적

고려시대 문헌에 전하는 총 91편의 불교설화 중, ‘승려의 신이한 행적’ 유형에 속하는 설화는 33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유형의 설화들은 대체로 僧傳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治病’·‘龍宮講說’·‘신이한 죽음’ 등의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승려의 ‘신이한 행적’으로 ‘치병’을 제시하고 있는 설화에는 ‘원광’·‘원광서학’·‘혜공’·‘밀본최사’·‘혜통향룡’ 등이 있다. 원광은 설법과 授戒로 왕의 병을 치료하였고, 혜공은 天真公의 침상 밑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의 종기를 낫게 하였다. ‘밀본최사’의 경우는 작품 전체가 치병에 관한 일화로 되어 있으며, ‘혜통향룡’은 치병이 핵심 모티프로 기능하고 있다. 이 두 설화는 늙은 여우·鬼衆·毒龍 등 질병의 원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혜통은 주문을 외워 만든 神兵들로, 당나라 공주의 몸

에 붙은 독룡을 물리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밀본은 『약사경』의 독송과 神將들의 도움으로 선덕여왕과 丞相 김양도의 몸에 붙어있던 늙은 여우 및 귀중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듯 ‘치병’ 관련 불교설화는 작품에 따라 치병의 방법 및 과정에 차이가 있지만, 치병의 대상이 국왕·공주·귀족 등 지배계층에 한정되어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

(1) 불도 수행을 마친 연광스님은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수십 명과 함께 큰 배를 타고 떠났다. 바다 가운데 이르렀을 때 배가 갑자기 꿈쩍을 았더니,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물결을 헤치며 뱃머리로 다가와서, “海神께서 스님을 청하십니다. 잠시 水宮에 가서서 경전을 강설해 주십시오.” 하였다. 스님이 말했다. “貧道の 이 몸은 희생되어도 좋지만 이 배와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같이 가고 배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두 배에서 내려 한참을 가니, 큰 거리가 나타나 오고, 길가에는 향기가 좋은 꽃이 만발했다. 해신이 수천 시종을 거느리고 나와서 스님을 맞아 대궐 안으로 들어갔다. 구슬 벽이 휘황찬란하게 빛나 정신이 황홀했다. 스님이 청하는 대로 자리에 올라 법화경을 설하고 나니, 해신은 진귀한 보배를 수없이 보시하고, 도로 배까지 데려다 주어 배에 올랐다.

(2) 본국으로 돌아온 연광스님은 날마다 어릴 때부터 해 온 법화경 독송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기지 않았다. 나이 80세에 입적하였는데, 다비를 하였더니 두골과 혀만은 타지 않아, 온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보고 듣고 모두 희유한 일이라 감탄하였다. 연광스님에게는 누이동생이 둘이 있어 일찍부터 불교를 독실하게 믿었다. 스님의 두골과 혀를 가져다 모셔놓고 공양하였는데, 가끔 두골과 혀에서 법화경 외우는 소리가 들렸고, 누이동생이 모르는 글자가 있어서 물으면 번번이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sup>13)</sup>

『법화영험전』의 「해룡청문」은 연광의 가계 소개 및 중국 유학과, 수궁

13) 『法華靈驗傳』 권상, 「海龍請聞」(『韓國佛教全書』 6, 554면)

에서의 『법화경』 강설, 그리고 사후에 있었던 신이한 일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인용문의 (1)은 ‘용궁강설’, (2)는 사후의 일을 포함한 ‘신이한 죽음’에 해당한다. 위의 (1)은 연광이 중국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오는 길에, 해신의 청으로 수궁에서 경전을 강설했다는 내용이다. 연광뿐만 아니라 연광이 났던 배안의 사람들까지 용궁에 간 것으로 되어 있고,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용궁의 모습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다. 곧 큰 거리의 길가에는 향기가 좋은 꽃이 활짝 피어 있고, 구슬로 되어 있는 대궐의 벽은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할 만큼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이다.

용궁에 대한 묘사는 같은 책에 수록된 『용천천강』에서도 보인다. 곧 “靑衣 입은 사람이 나타나 길을 인도하였다. 용궁에 들어가니 인간세계와는 같지 않은데, 시위하고 있는 군사가 모두 魚類와 귀신들이었다.”<sup>14)</sup>의 구절이 그것이다. 이 설화에서 현광은 天帝의 명령으로 용왕에게 『법화경』을 강설하고 있는데, 용궁에 있는 동안 현광이 났던 배가 멈춰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설화 외에, 『보양이목』과 『명랑신인』 또한 ‘용궁강설’의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다. 보양과 명랑은 각각 ‘서해용왕’과 ‘해룡’의 청으로 용궁에서 불법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용궁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없는 대신, 보양이 서해용왕의 아들인 ‘璃目’과 함께 신라로 돌아오고, 명랑이 해룡에게 받은 많은 황금을 가지고 자기 집의 우물 밑에서 솟아나왔다는 일화가 첨가되어 있다.

그런데, 용궁에서의 설법은 각 설화의 주인공들이 모두 중국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용궁강설’의 모티프가 異界에서의 불법 전파라는 의미와 함께, 중국유학으로 인해 이제 보다 높은 경지에 오른 ‘고승’으로서의 면모를 형상화한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14) 『法華靈驗傳』 권상, 『龍天講講』(『韓國佛教全書』 6, 555면)

한편, 인용문 (2)는 연광의 시신을 화장한 뒤에도 두골과 혀가 남아 있어 가끔 『법화경』을 독송하고, 심지어 두 여동생의 질문에 대답까지 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신이한 죽음’의 모티프는 ‘승려의 신이한 행적’ 유형에 속하는 적지 않은 설화에 나타나 있는데, 「원광서학」·「혜숙」·「안함」·「혜공」·「관동풍악발연수석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광은 입적할 때 공중에서 음악소리가 들리고異香이 가득하였다. 그 후 어떤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 원광의 무덤 옆에 死胎를 묻었더니, 벽락이 치고 사태가 무덤 밖으로 내던져졌다고 한다. 혜숙의 경우는 마을사람들이 耳峴 동쪽에 장사지냈는데, 이현 서쪽에서 오던 마을사람이 산길에서 혜숙을 만났다. 그 사람이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알려 무덤을 파보니 짙신 한 짝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라의 사신은 귀국하는 배 위에서 푸른 물결 위에 자리를 펴고 앉아 서쪽으로 가는 안함을 보았으며, 산길에서 혜공의 시신을 발견하였던 瞿岳公은 성으로 들어와 술에 취해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혜공을 목격한다. 또한 진표는 큰 바위 위에서 입적하였고 그 바위에는 푸른 소나무가 솟아났다.

이상과 같은 ‘신이한 죽음’은 ‘치병’·‘용궁강설’과 함께 해당 승려들이 ‘고승’임을 드러내는 징표로, 이들이 我相과 分別心에서 벗어나 생사에 자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2. 불·보살상과 경전의 영험

‘경전의 영험’은 불교경전의 독송과 書寫로 인해 일어난 신이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12편의 설화 중 「선율환생」을 제외한 모든 설화가 『법화경』의 영험담에 해당하는데, 서사의 영험담보다는 독송과 관련된 설화의 비중이 크다. 그리고 대부분의 설화가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이들 설화에서 『법화경』 독송의 ‘영험’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곧 백제의 승려 혜현은 죽은 뒤에도 그의 혀만은 찌지

않고 붉었으며(『혜현구정』), 고려시대 尙州의 한 陰陽僧은 입에서 밝은 빛이 나왔다.(『광명출어구각』) 또한 『법화경』을 독송하는 모임을 만들었던 戶長 김의균의 무덤에는 연꽃이 피었다.(『함담생어설근』) 『법화경』 ‘서사’의 영험담으로는, 『심경변산인지정서』와 『천제요경이입장』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승려 흥변이 서사하여 일본 승려에게 준 『법화경』에서 찬란한 빛이 났다는 내용이고, 후자는 靜和宅主의 시주로 조성된 『법화경』 寫經 한 짚을, 神人이 도리천에 모셔놓았다는 것이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선율환생』의 경우는, 『법화경』이 아닌 『대품반야경』과 관련된 영험담이다. 『대품반야경』의 사경을 조성하는 중, 수명이 다해 冥府로 끌려간 선율이, 사경을 완성하고 오라는 冥司의 명령에 따라 죽은 지 10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다. 이야기의 끝에는, “그 책은 지금 東都의 僧司書庫 안에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는 그것을 轉讀하여 재앙을 물리쳤다.”라는 일연의 언급이 있다. 그런데, 이 설화는 신라·고려시대의 불교설화 가운데 저승의 명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예에 해당한다. 이른바 ‘명부설화’는 중국과 일본의 불교설화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선율환생』 외에 명부설화가 없다는 점은 고려시대 문헌 소재 불교설화의 특징적인 국면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경전 관련 영험담에서, 경전을 독송·서사한 결과로서 ‘영험’은 해당 인물들의 목적 내지 의도와 관련이 없다. 혜현이 『법화경』 독송을 업으로 삼은 것은 자신의 허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정화택주는 자신의 시주로 만들어진 사경을 신인이 도리천으로 가지고 갈 줄은 몰랐으며, 선율은 자신의 환생을 위해 『반야경』 사경을 조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반해, ‘불·보살상의 영험’에 속하는 7편의 설화들은 대체로 관세음보살이 영험의 ‘주체’로 설정되어 있고, 문제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문제가 관음상 앞에서의 기도로 인해 해결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우금리에 사는 가난한 여인 寶開에게 長春이란 아들이 있었다. 바다의 장사꾼을 따라다녔는데,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민장사 관음보살상 앞으로 가서 7일 동안 기도를 드렸더니 장춘이 갑자기 돌아왔다. 그 내력을 물으니 장춘이 대답했다. “바다 가운데에서 회오리바람을 만나 배가 부서져 동료들은 모두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널빤지를 타고 오나라 해변에 닿았습니다. 오나라 사람들은 저를 데려다가 들에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異僧이 고향에서 온 것처럼 저를 은근히 위로하고는 저를 데리고 동행하는데, 앞에 깊은 개천이 나오자 스님은 저를 옆에 끼고 개천을 건너뛰었습니다. 정신이 희미한 가운데 우리말 소리와 우는 소리가 들리므로 그곳을 살펴보니 벌써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申時에 오나라를 떠났다는데 이곳에 이른 것은 겨우 戌時 초였다. 그때는 곧 天寶 4년 을유(745) 4월 8일이었다. 경덕왕은 이 소식을 듣고 민장사에 받을 시주하고 또 재물도 바쳤다.<sup>15)</sup>

인용문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민장사」를 옮긴 것이다. 이 설화는 『법화영험전』에는 「흑풍취기선방」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두 설화 모두, 장사 떠났다가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아들 장춘의 무사귀환을 위해 어머니 보개가 민장사의 관음상 앞에서 7일 동안 기도하였고, 그 결과 장춘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만 「흑풍취기선방」은 수록문헌의 성격상, 『법화경』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sup>16)</sup>

인용문을 보면, 오나라에 표류한 장춘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를 찾아온 ‘異僧’의 도움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설화의 문면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이승’은 바로 민장사의 관세음보살이 化現

15) 『삼국유사』 권3, 塔像 제4 「敏藏寺」.

16) 참고로, 그 부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每於月生八日 幸寺禮讚 永爲定式. 寶開與長春 約結鄰里 清信士女 特成金字蓮經一部. 每至春三月 爲立道場 敷宣妙理 精修禮敬 仰賽玄恩.” 『法華靈驗傳』 권하, 「黑風吹其船舫」. (『韓國佛教全書』 6, 565면)

한 것이다. 『백률사』와 『삼소관음중생사』에서도 관세음보살의 현신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 전자는 말갈족에게 붙잡혀간 국선 夫禮郎을 위해 그의 부모가 백률사의 관음상에게 기도하니, 용모가 단정한 승려가 나타나 부례랑과 그의 동료인 安常을 무사히 고국으로 데리고 왔다는 내용이다. 후자에서는, 중생사의 주지인 性泰가 더 이상 시주가 없어 절을 떠나려 하자, 중생사의 관음보살은 승려의 모습으로 나타나 두 사람의 시주를 데리고 온다. 이렇듯 이들 설화는 관음보살이 승려의 모습으로 화현하여 주인공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 2.3. 佛緣國土와 불·보살의 常住

‘불연국토’는 신라를 포함한 ‘海東’이 부처 및 불교와 인연이 있음을 형상화한 것으로, 10편의 설화가 이 유형에 속한다. 먼저, 『아도』·『아도기라』는 아도의 어머니인 高道寧의 발화를 통해, 신라 땅에 석가불 이전의 절터가 남아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가섭불연좌석』은 월성의 남쪽 용궁 동쪽에 가섭불이 좌선하던 바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두 설화는 석가불 이전의 부처인 가섭불 때부터 신라가 이미 불교국가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민지의 『금강산유점사사적기』는 신라와 불교의 ‘인연’을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인도의 문수보살은 사위성에서 만든 53불을 인연이 있는 국토에 가서 머무르라고 범종에 실어 바다에 띄워 보낸다. 그 결과 53불을 실은 범종이 금강산 동쪽의 安昌縣 포구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설화에는 이 때가 신라 남해왕 원년(AD.4)으로 되어 있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가 후한 明帝 永平 10년(67)이므로, 이 사적기에 따르면 중국보다 앞서, 중국을 거치지 않고 인도에서 직접 불상이 전해진 것이 된다.

그리고 『황룡사장록』에서는 이 사적기에서 더 나아가, 신라가 중국뿐만 아니라 석가불이 태어난 인도보다도 ‘불연’이 깊음을 보여준다. 곧 인

도의 아육왕이 조성하려다가 실패한 丈六尊像이, 南閻浮提의 16대국과 5백의 중국 및 1만의 소국을 거쳐서도 그 완성을 이루지 못하다가, 진흥왕대의 신라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어 황룡사에 모셨다는 것이다. 이렇듯 고려시대 문헌의 불교설화는 신라와 불교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는데, 몇몇 설화에는 고구려와 가락국 또한 신라 못지않게 ‘불연’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요동성육왕탑』에서 고구려의 聖王은 요동성을 순행하다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승려와 세 겹으로 된 土塔을 발견한다. 가까이 가서 보면 승려와 탑이 없어, 땅을 파보니 탑의 흔적이 있었고, 그 탑은 아육왕이 남염부제의 곳곳에 세웠던 탑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다. 또한 『어산불영』과 『금관성파사석탑』은 각각 수로왕의 요청으로 석가불이 가야국에서 설법을 하였고, 수로왕의 왕비인 許黃玉이 후한 建武 24년(48)에 阿踰陀國에서 탑을 배에 싣고 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구려 요동성의 땅 밑에 인도의 아육왕이 세운 탑의 흔적이 있고, 가락국의 수로왕대에 부처의 설법과 불탑이 있었다는 사실은, 『금강산유점사사적기』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이미 불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설화를 통해 『삼국유사』·『금강산유점사사적기』가 찬술된 13세기 후반 이전의 신라·고려인들은, 신라를 포함한 ‘해동’이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이미 불교와 인연이 깊은 곳이었으며, 또한 그 점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우월하다는 인식 내지 자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 내지 자부심은 과거의 사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보살이 지금도 신라 땅에 항상 머무르고 있다는 관념으로 발전한다. 13편의 설화에 해당하는 ‘불·보살의 상주’ 유형은 바로 이와 같은 관념이 형상화된 것으로, 『대산오만진신』을 대표적인 작품으로 들 수 있다. 이

설화는 淨神대왕의 태자 寶川의 수행담이라 할 수 있는데, 『명주오대산 태자보질도전기』는 ‘보천’의 이름이 ‘보질도’로 되어 있을 뿐, 『대산오만진신』의 축약본에 해당한다.

이 두 설화에는 보천(보질도)이 동생인 孝明과 함께 오대산에 들어가 암자를 짓고 부지런히 선업을 닦던 어느 날, 그들 앞에 펼쳐진 다음과 같은 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곧 “하루는 (형제가) 함께 다섯 봉우리에 올라가 우러러 배례하려고 하니, 東臺인 滿月山에 1만 관음보살의 眞身이 나타나 있고, 南臺인 기린산에 8대보살을 수위로 한 1만 지장보살, 西臺인 장령산에 無量壽如來를 수위로 한 1만 대세지보살, 北臺인 상왕산에는 석가여래를 수위로 한 5백 대이라한, 中臺인 풍로산에는 비로자나불을 수위로 한 1만 문수보살이 나타나 있었다. 이와 같은 5만 진신에게 일일이 예배하였다.”<sup>17)</sup>가 그것이다.

이러한 묘사는 강원도의 오대산이 바로 불·보살의 상주처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불·보살의 상주처에 대한 관념은 이 유형에 속하는 다른 설화들에서도 보인다. 곧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는 낙산을 관음과 정취보살의 상주처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연회도명 문수점』·『보개산 석대기』에는 각각 울주의 영취산과 철원의 보개산이 문수와 지장보살이 항상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3편의 설화를 포함한 ‘불·보살의 상주’ 관련 설화들에는 모두 ‘불·보살의 현신’ 모티프가 들어 있다. 무왕과 선화공주 앞에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무왕』의 미륵삼존과, 위의 『대산오만진신』·『명주오대산태자보질도전기』를 제외하면, 이 유형의 설화들에서 불·보살은 진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에서 관음보살

17) “一日同上五峯瞻禮次 東臺滿月山 有一萬觀音眞身現在 南臺麒麟山 八大菩薩爲首一萬地藏 西臺長嶺山 無量壽如來爲首一萬大勢至 北臺象王山 釋迦如來爲首五百大阿羅漢 中臺風盧山亦名地盧山 毗盧遮那爲首一萬文殊. 如是五萬眞身一瞻禮.” 『삼국유사』 권3, 塔像 제4 『臺山五萬眞身』.

과 정취보살은 각각 벼를 베고 있는 여인·月水帛을 빨고 있는 여인과 왼쪽 귀가 없는 승려로, 『연회도명』·『보개산석대기』의 문수보살과 지장보살은 밭을 가는 노인과 금돼지로 화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산월정사오류성중』에서 신희거사는 늙은 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관음보살을, 『진신수공』에서 효소왕은 허름한 차림의 비구로 화현한 석가불을 만나고 있다.

‘불·보살상의 영험’ 유형에서 관음보살이 이승이나 용모가 단정한 승려로 현신한 것과 달리, 이들 설화에서는 대체로 승려 이외의 모습으로 화현하고 있는 것이다. 승려일 경우도 그 차림이 허름하거나 한 쪽 귀가 없는 비구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점은 조동일의 견해처럼 비속함 속의 숭고함 또는 비속한 것이 바로 숭고한 것이라는 불교적 가르침을 드러낸 것<sup>18)</sup>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유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보살의 현신들은 ‘평범함’ 내지 ‘흔히 볼 수 있는 군상’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불·보살이 평범한 군중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같은 곳에서 숨 쉬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굳이 불교적 가르침으로 해석한다면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다는 ‘一切衆生 悉有佛性’의 설화적·문학적 형상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4. 정토왕생과 現身成佛

정토왕생에 관한 설화는 우선 『법화영험전』 소재의 『보암도지혹강혹의』와 『연화원지약독약설』을 들 수 있다. 이들 설화는 고려시대 개성의 寶岩寺와 蓮華院의 신도들이 法華社를 조직하여 서로 돌아가며 『법화경』을 강설하고 염불수행에 정진한 결과 정토에 왕생했다는 내용이다. 왕생을 위한 수행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왕생 자체에

18) 조동일, 앞의 책, 259-261면.

대해서는 각각 “죽을 때에 이르러 뜻과 같이 자재하게 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故至臨終之際, 如意自在者不絕焉)”와 “정토에 회향하는 사람이 많았다.(廻向淨土者多)”라는 언급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포천산오비구』에서는 왕생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 설화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섯 비구가 포천산에서 염불수행을 하며 서방정토를 구한 지 몇 십년 뒤에, 각기 연화대에 앉아 서방정토로 왕생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다섯 비구는 天樂이 울리는 가운데 苦空無常의 이치를 설법하고 나서 유해를 벗어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듯 왕생인이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고 유해를 벗어버린다는 설정은 후대의 불교설화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왕생설화에서도 전혀 볼 수 없는 예에 해당한다.

현재의 살아있는 몸 그대로 부처가 된다는 ‘현신성불’ 역시 여타의 동아시아 불교설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형에 속한다. 『육면비염불서승』은 阿干 貴珍의 여종인 육면이 주인의 방해도 불구하고 염불하기를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은 결과 부처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육면이 부처가 되는 모습은 설화의 문면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天樂이 서쪽에서 들려오니, 육면은 몸을 솟구쳐 절의 대들보를 뚫고 올라가 서쪽으로 교외에 가서 유해를 벗어버리고 眞身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연화대에 앉아서 큰 광명을 내며 천천히 갔다.” 이러한 묘사는 ‘鄉傳’을 따른 것이고, ‘僧傳’이 출전인 부분에서는 육면이 다만 몸을 버렸다고만 되어 있을 뿐, 진신으로 변하여 연화대에 앉아 있었다는 언급은 없다. 그렇지만 ‘승전’에는 육면이 서쪽으로 가다가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린 곳에 ‘菩提寺’를, 육신을 버린 곳에는 ‘제2 보리사’를 지었고, 야간 귀진은 ‘法王寺’를 세웠다는 사실이 소개되어 있다. 육면을 위해 지은 절 이름이 ‘보리’·‘법왕’이라는 점에서, ‘승전’이 출전인 설화 또한 육면이 부처가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노힐이 마지못해 그 말대로 쫓았더니, 홀연히 정신이 상쾌해지는 것을 깨닫고 살갓이 금빛으로 변하였다. 그 옆을 보니 문득 하나의 연화대가 생겼다. 낭자는 그에게 앉기를 권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관음보살인데 (이곳에) 와서 大師가 大菩提를 성취하도록 도운 것입니다.’라고 하고 말을 마치자 보이지 않았다. 박박은 노힐이 오늘밤에 틀림없이 계를 더럽혔을 것이니, 그를 비웃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르러 보니 노힐은 연화대에 앉아 미륵존상이 되어 광명을 발하고 몸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 중략 …) 노힐이 말하기를 “통 속에 金液이 남았으니 목욕함이 좋겠습니까.” 박박이 목욕을 하여 노힐과 같이 무량수불을 이루니 두 부처가 서로 엄연히 대해 있었다.<sup>19)</sup>

『남백월이성 노힐부득 달달박박』은 성덕왕대의 승려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관음보살의 현신인 임신한 여인의 도움으로 각각 미륵불과 아미타불로 성불했다는 내용이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성불은 성덕왕 8년(709)에 있었던 일로, 757년(경덕왕 16)에 경덕왕은 이들의 성불을 기리기 위해 백월산 남사를 짓게 하고, 이들을 모신 법당을 각각 ‘現身成道彌勒之殿’과 ‘現身成道無量壽殿’으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위의 인용문은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부처가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함께 목욕할 자는 여인의 권유로 노힐부득이 물속에 들어가자, 그 몸이 금빛으로 변하고 옆에는 갑자기 연화대가 나타났으며, 달달박박 또한 노힐부득의 권유로 목욕하여 부처가 되었다는 것이다.

미륵은 석가불 당시부터 56억만년이 지난 미래에 이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제도할 부처로, 현재는 도솔천에 머무르고 있다. 아미타불은 이미 10겁 이전에 성불하여 현재 서방정토의 주불이 되어 있는 현재불이다. 그러므로 새로 성불한 신라의 미륵불과 아미타불이 있을 곳은 도솔천과 서방정토가 될 수 없다. 본래 부처는 성불한 그 땅에 머무는 것이 당연하므로

19) 『삼국유사』 권3, 塔像 제4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

이들은 法身佛이 되어 신라의 국토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 된다.<sup>20)</sup>

결국, 앞에서 살펴본 ‘불연국토와 불·보살의 상주’ 유형이 신라의 국토를 부처와 인연이 깊고 불·보살이 상주하는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에 이어, 이 유형에는 이러한 형상화의 귀결로서 ‘신라의 부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승려의 신이한 행적’과 ‘불보살상의 영험’ 유형에도 보살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신라·고려시대의 불교설화는 ‘佛國의 형상화’를 지향하고 있는 내용적 경향성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 3. 조선시대 문헌 소재 불교설화의 구도와 전개

#### 3.1. 『석가여래십지수행기』·『월인석보』의 본생담

『석가여래십지수행기』(이하 『수행기』)는 그 서문 및 발문에 따르면, 1448년(세종 30)에 伊府에서 판각되었던 것을, 1660년(현종 1) 충주 덕주사에서 다시 간행한 것이다. 원간본인 이부분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sup>21)</sup> 이 책은 『善色鹿王』(제1지)·『忍辱太子』(제2지)·『布施國王』(제3지)·『捨身太子』(제4지)·『忍辱仙人』(제5지)·『善友太子』(제6지)·『金犢太子』(제7지)·『善惠童子』(제8지)·『布施太子』(제9지)·『悉達太子』(제10지) 등 10편의 설화를 수록하고 있다. 『실달태자』는 석가의 전기이고, 나머지 9편은 석가의 전생이야기, 곧 본생담에 해당한다. 이들 본생담은 저본을 찾을 수 없는 『금독태자』를 제외하면 모두 佛典에 근거하고 있지만, 불전의 본생담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20) 김영태, 『신라불교의 현신성불관』, 『신라문화』 1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4, 109면.

21) 박병동, 『『석가여래십지수행기』의 이본 검토』, 『고소설연구』 1권, 한국고소설학회, 1995, 151면.

불전의 본생담은 예외 없이 현재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연결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이야기’는 석가가 전생이야기를 말하게 된 계기 내지 이유에 해당하고, ‘연결의 이야기’는 현재 이야기와 과거 이야기의 인물을 연결시키면서 이야기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수행기』의 본생담은 모두 ‘현재의 이야기’ 없이 과거의 이야기로만 되어 있고, ‘연결의 이야기’ 또한 대부분의 설화에서 생략되어 있다. ‘연결의 이야기’가 있는 『선색녹왕』·『인육선인』·『선우태자』·『금독태자』에 있어서도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에 그치고 있을 뿐, 이야기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수행기』의 본생담은 그 내용에 있어, 『선색녹왕』을 제외한 모든 설화가 주인공의 ‘坐化而去’로 끝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몇몇 설화의 경우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도 함께 앉은 채로 입적하고 있다. 인육선인과 국왕, 선우태자와 태자비는 함께 산중에 들어가 수행 정진하다가 앉아서 열반에 들고 있으며, 금독태자는 어머니와 함께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용상 위에 앉아서 생을 마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대부분의 본생담이 ‘보시’의 실천과 그 공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육선인』과 『금독태자』가 각각 인육과 효도에 관한 내용일 뿐,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전생의 석가가 실천한 보시행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곧 인육태자와 사신태자는 각각 굶주린 매와 호랑이에게 자신의 몸을 먹이로 주었고, 선우태자는 많은 중생들에게 보시하기 위해 寶珠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났으며, 보시대자는 바라문과 노인의 요구대로 두 아이와 태자비를 그들에게 주고 있다. 보시국왕 역시 왕비와 태자,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아낌없이 夜叉에게 보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수행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시행은, 대승불교에서 보시의 이상으로 추구하고 있는 無住相布施의 구체적인 실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처자식까지 보시하고 있는 보시대자와 보시국왕의 행

동은 『금강경』의 “보살은 사물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해서는 안 되며, 그 어디에도 머물러서 보시를 행해서는 안 된다.”<sup>22)</sup>는 무주상보시에 다음 아  
닌 것이다.

한편, 1459년(세조 5)에 간행된 석가의 일대기인 『월인석보』에도 본생  
담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세종대에 간행된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  
곡』을 합편·증수한 것으로, 전 25권 중 현재 20권이 전하고 있다. 현재  
전하는 『월인석보』에는 15편의 본생담이 수록되어 있는데, 수록된 권차  
및 저본과 함께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월인석보』 소재 본생담

	제목	卷次	張次	저본
1	小瞿曇 이야기	권1	4ㄴ7~8ㄴ1	釋迦譜 第2
2	善慧의 성불 예언		8ㄴ1~21ㄴ2	過去現在因果經 卷1
3	廣熾陶師의 보시행	권2	9ㄴ2~10ㄴ4	阿毘達磨大毘婆沙論 卷177
4	앵무새의 孝養行		12ㄴ5~13ㄴ5	雜寶藏經 卷1
5	善鹿王의 보시행	권4	62ㄴ6~65ㄴ6	大智度論 卷16
6	忍辱仙人의 인욕행		65ㄴ6~66ㄴ	賢愚經 卷2
7	度闍尼婆梨王의 보시행	권7	54-1ㄴ6~54-3ㄴ1	經律異相 卷25
8	鴛鴦夫人의 극락왕생	권8	89ㄴ6~103ㄴ2	安樂國太子經
9	尸毗王의 보시행	권11	3ㄴ6~5ㄴ5	經律異相 卷25
10	薩埵太子의 보시행		5ㄴ5~9ㄴ7	經律異相 卷31
11	月明王의 보시행		9ㄴ7~10ㄴ3	經律異相 卷10
12	須大拏太子의 보시행	권20	61ㄴ7~91ㄴ7	太子須大拏經
13	須闍提太子의 효양행		101ㄴ4~117ㄴ7	大方便佛報恩經 卷1 孝養品 第2
14	忍辱太子의 효양행	권21	213ㄴ4~222ㄴ1	大方便佛報恩經 卷3 論議品 第5
15	善友太子의 보시행	권22	20ㄴ~69ㄴ5	大方便佛報恩經 卷4 惡友品 第6

22) “菩薩於法 應無所住 行於布施” 鳩摩羅什 譯, 『금강경』 妙行無住分 第4.(『大正  
新修大藏經』 8, 749면)

도표의 2·5·6·12·15번은 차례대로 『수행기』의 「선해동자」·「선색  
 녹왕」·「인육선인」·「보시태자」·「선우태자」와 그 저본이 대응된다. 『월  
 인석보』는 석가의 일생과 관련된 불전들을 번역한 것이므로, 이들 본생담  
 또한 저본이 되는 불전의 내용 그대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위의  
 도표를 통해, 『월인석보』는 보시·효도·인육·왕생 등과 관련된 본생담  
 들을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수행기』와 마찬가지로 ‘무주상보시’  
 를 강조하고 있는 본생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 초기에 간행된 『수행기』·『월인석보』가 불전의 본생담 중  
 에서도 보시·인육·효도와 관련된 본생담들을 수록하고 있는 것은, 이  
 들 문헌이 설정한 주요 독자(청자)들이 재가자를 포함한 일반 백성들이었  
 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23)</sup> 보시·효도·인육 등은 불교신자  
 로서 복덕과 공덕을 짓기 위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  
 켜야 할 생활규범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책들이 간행된 시기가 ‘승유억불’의 시대라는 점과, 보시가  
 ‘捨欲’ 또는 ‘無欲’을 위한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주상보시’의 강  
 조는 재가자보다는 당시의 승려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선초기  
 의 배불 유학자들은 불교 교리의 근본이 淸淨과 寡欲에 있음을 강조하면  
 서, 승려들이 이 근본 교리를 돌보지 않는 불교 교단의 타락과 허위성을  
 배불의 전제로 제시하고 있다.<sup>24)</sup> 곧 ‘무주상보시’를 강조하고 있는 본생담  
 들의 수록은 당시 승려들에 대한 교화 내지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수행기』와 『월인석보』가 각각  
 이부와 세조의 주관 아래 간행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고 하겠  
 다.

23) 전진아, 「<석가여래십지수행기>의 구성방식」, 『한국고전연구』 3집, 고전연구학회,  
 1997, 224면.

24) 『세종실록』 권6, 1년 무진 11월 28일.

### 3.2. 사지寺誌와 사찰연기설화

사지는 사찰의 緣起, 연혁 등에 관련된 고문서나 異蹟 · 유물목록 · 재 산문서 등 사찰 관계의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일정한 체계 속에 정리한 문헌이다. ‘사지’ 외에, 事蹟 · 寺乘 · 古蹟 · 寺中 · 山記 등의 용어로도 쓰였다.<sup>25)</sup> 신라 · 고려시대의 사지는 현재 전하지 않지만, 『삼국유사』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곧 일연은 몇몇 사찰 및 인물의 서술에 있어 『感恩寺中記』 · 『東泉寺記』 · 『金光寺本記』 · 『靈鷲寺記』 · 『佛國寺寺中記』 등의 사지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지는 17세기 이후에 편찬 · 간행된 것으로, 17 · 18세기는 사지의 간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 해당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적지 않은 사찰들이 훼손 내지 파괴되자, 이에 대한 위기감으로 전국 각처의 사찰에서 훼손된 사지를 복원하거나 새로 찬술했기 때문이다.<sup>26)</sup> 임진왜란 때 義僧兵으로 활동했던 中觀海眼(1567 ~?)은 사지 편찬의 선구적인 인물로, 그가 편찬한 『금산사사적』(1635) · 『대둔사사적』(1636) · 『화엄사사적』(1636)은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사지라 할 수 있다.<sup>27)</sup> 이들 사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찰의 창건 및 연혁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삼국유사』의 관련 부분을 옮긴 것이다. 그 후 간행된 『운문사사적』(1718) · 『佛國寺古今創記』(1740) · 『직지사사적』(1776) 등의 사지 또한 『삼국유사』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차용하여 각 사찰의 연혁을 정리하고 있다.<sup>28)</sup>

『범어사창건사적』(1700)의 경우는 『삼국유사』에 없는 創寺 관련 사적

25) 허홍식, 「사지의 간행과 전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789면.

26) 김승호, 『한국 사찰연기설화의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5, 124-125면.

27) 허홍식, 위의 논문, 795면.

28) 오경후, 「조선시대 사찰사적에 관한 검토」, 『경주사학』 24 · 25합집, 경주사학회, 2006, 357-360면.

을 수록하고 있다. 곧 신라 흥덕왕이 의상의 도움으로 10만 병선을 이끌고 침략한 왜구를 물리쳤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범어사를 창건했다는 것이다. 사지에 따르면 이 때가 흥덕왕 10년(835)으로 되어 있는데, 의상의 생몰연대가 625~702년이라는 점에서 사지 편찬 당시까지 전래하던 문헌이나 구전을 어떤 고증도 없이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설화의 다음과 같은 내용은 주목을 요한다. “태백산에 의상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金山寶蓋如來의 제7 後身입니다. 항상 聖衆 1천, 凡衆 1천, 鬼衆 1천 등 3천 명의 대중을 거느리고 華嚴義持法門을 연설합니다. 이에 華嚴神衆과 40法體, 諸神 및 천왕이 항상 떠나지 않고 따라다닙니다.”<sup>29)</sup>가 그것이다. 이 언급은 왜구의 침략 소식에 걱정하던 흥덕왕의 꿈에 神인이 나타나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의상은 성중과 귀중을 거느리고, 화엄신중·제신·천왕 등이 항상 따라다니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중들은 의상의 기도에 감응하여 왜구의 침략을 물리치고 있다. 곧 설화에는 “땅이 크게 진동하면서 홀연히 諸佛, 천왕, 신중 그리고 문수동자 등이 각각 현신하여 모두 병기를 가지고 동해에 가서 적을 토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범어사 창건 설화는 ‘승려의 신이한 행적’과 관련된 설화이자, 동시에 ‘불·보살의 상주’ 유형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중들이 의상의 곁을 떠나지 않고, 제불이 현신하여 왜구를 물리치고 있는 것은, 당시 의상이 있던 金井山이 불·보살의 상주처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신라·고려시대 불교설화의 ‘불국의 형상화’가 조선후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이 설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국의 형상화는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알려진 『玉果縣聖德山觀音寺事蹟』(1729)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사적기는 편찬자가 젊은 시절에 관음사의 장로들에게 들은 이야기로, 흥장이 효를 행하고 황후로 등극하

29) 東溪, 『梵魚寺創建事蹟』(『범어사지』, 아세아문화사, 1989, 6면)

는 부분과, 홍장의 불사 및 성덕의 관음사 창건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에서 중국 西晉의 황후가 된 홍장은 53佛·5백 聖衆·16나한을 만들어 고국으로 보낸다. 또한 장님인 아버지를 위해 불상과 탑을 대흥현의 홍법사에 모시게 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금으로 관음보살상을 만들어 돌배에 실어 보낸다. 이 배는 여러 곳을 떠돌다가 보살상을 만든 지 1년여 만에 옥과현의 한 바닷가에 이르고, 마침 그곳에 있던 성덕이라는 처녀가 그 배를 발견하게 된다. 성덕은 배에 있던 관음상을 등에 업고 길을 떠났는데, 어느 고개에 이르러 가벼웠던 관음상이 태산처럼 무거워져 한 발짝도 땄 수가 없자, 그곳에 관음상을 안치하고 관음사를 창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사적에 대해 사적기의 찬자는 “대개 홍장과 성덕은 모두 관음의 인연을 따라 감응한 化身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석가모니가 속세에 백역의 분신을 나투신 것은 아니겠는가.”<sup>30)</sup>라는 논평을 덧붙이고 있다. 이 설화의 주인공인 홍장과 성덕이 관음보살의 화신이자, 석가불의 분신이라는 것은 바로 옥과현의 성덕산이 佛緣이 깃든 곳이라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더 나아가 관음보살이자 석가불의 현신이 만들고 모셔온, 관음상이 안치된 관음사는 관음신앙의 본산이자 성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관음사 연기설화는 설화 형성 당시의 옥과현 사람들이 가졌던 ‘불연국토’ 내지 관음성지라는 인식과 자부심이 형상화된 것으로, 『심청전』의 주제 의식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俗傳에 普德은 民家の 여자라고 한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더불어 금강산에 들어가 구걸을 하였다. (… 중략 …) 이 때 한 승려가 갑자기 사악한 마음이 일어나 은밀히 그녀를 쫓았는데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30) “蓋弘莊與聖德 俱是觀音隨應之身歟. 豈特牟尼分身百億於塵刹耶.” 白梅子, 『玉果縣聖德山觀音寺事蹟』.

탁상 위의 탕화를 가리키면서 “佛畫도 오히려 공경해야 할 것이거늘 生佛에 있어서겠는가.”라고 한 뒤, 眞像을 드러내니, 그 금빛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승려는 애걸하며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녀는 아버지께 말하기를, “주머니에 물을 채우셨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주머니가 성근데 물이 어찌 채워지겠는가.” 그녀가 말하였다. “하나에 마음을 쓰면 공이 모아지고 공이 모아지면 즉 道가 응축되는 것인데, 지금 아버지께서 마음속으로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물을 붓고 있는데 공이 어찌 능히 한 곳으로 모이며 道가 어찌 능히 모쳐지겠습니까?” 이 때에 아버지는 크게 깨쳤다. …(중략)… 보덕이 삼태기를 승려에게 주며 말하였다. “물이 주머니에 차고 삼태기는 창고에 넘치니 공이 이루어져 가득하길 바랍니다. 부처님을 보는 것이 무슨 의심이 있었습니까.” 스님 역시 크게 깨쳤다. 후인들은 마침내 세 사람의 像을 새겼는데, 지금까지 굴 안에 있다. 왕왕 그곳에 瑞氣가 서린다고 한다.<sup>31)</sup>

인용문은 조선후기의 사찰사전인 『梵宇攷』<sup>32)</sup> 소재의 보덕굴 연기설화를 옮긴 것이다. 이 설화는 민가의 여인인 보덕이 아버지와, 한 승려를 도와 불도를 깨닫게 했다는 내용이다. 후인들이 이 세 사람의 상을 보덕이 살던 굴 안에 새겼고, 지금도 그곳에 서기가 서린다는 후일담이 첨가되어 있다. 인용문을 통해, 悟道의 방법 내지 이유로 我相과 이로 인한 분별심의 극복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보덕의 정체가 밝혀져 있어 주목

31) “俗傳 普德者 民家女也. 幼時與父 行乞入金剛山. …(中略)… 有一僧 忽朋邪念 微挑之 女乃勵聲. 指桌上畫佛之幀曰 畫佛尙可敬 況生佛乎. 遂露現眞像 金光奪目. 僧哀呼請死. 女呼其父曰 囊之水盈乎. 父曰 囊疎水豈盈乎. 女曰 心一則功專 功專則道凝. 今父心知囊之必不盈 而強而注水 功何能專而道何能凝乎. 於是父大悟. …(中略)… 女亦大笑 以畚擲僧曰 水盈於囊 畚盈於庫 功成願滿 見佛無作乎. 僧亦大悟. 後人遂刻三人像 至今窟中 往往有瑞氣云.” 『梵宇攷』, 『普德窟』.

32) 현재 전하는 『범우고』는 간행된 적이 없는 필사본이다. 『弘齋全書』 권182의 『群書標記』에, 정조가 1799년(정조 23)에 쓴 서문이 실려 있다.

된다. 곧 자신을 겁탈하려한 승려에게 보덕은 자신이 ‘生佛’임을 밝힌 뒤 황금빛의 眞身을 드러내고 있다. 아버지와 함께 금강산의 동굴 안에 살면서 걸식하던 보덕이 사실은 부처의 현신이라는 것이다. 『삼국유사』의 『옥면비염불서승』을 연상하게 하는 이 설화는, 성불의 과정은 생략한 채 보덕이 살아있는 부처라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어, 신라·고려시대 불교 설화의 ‘현신성불’ 유형과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보덕굴 연기설화 역시 『오대산만신』·『금강산유점사사적기』와 마찬가지로, 금강산이 부처가 상주하고 있는 성스러운 공간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3.3. 『진묵조사유적고』의 진묵설화

『震默祖師遺蹟攷』(1857)는 震默一玉(1562~1633)의 死後 처음으로 편찬·간행된 진묵 관련 문헌으로, 목판본의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전주지역의 儒者인 金箕鍾(1783~1850)의 요청으로 草衣意恂(1786~1866)이 그 편찬을 맡았고, 간행은 김기종의 두 아들인 김영곤·김영학의 시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진묵조사유적고』(이하 『유적고』)에 수록된 진묵의 ‘유적’ 또한 김기종이 같은 마을의 노인 및 승려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초의에게 구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33)</sup> 이렇듯 『유적고』는 그 이전과 동시대의 승려 문집 및 고승전기와는 다른, 호남 지역의 유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헌설화집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사는 나이 7세에 출가하여 전주 鳳棲寺에서 內典을 읽었는데, 어려서부터 머리가 영특하고 총명하여 스승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깊은 속뜻을 환하게 알았다. 출가하여 머리 깎고 떡물 옷을 입고 사미가 되었을 때에 마침 절에 불사가 있었다. 그 일을 관장하는 사람은 대사가 비록 나이는

33) 김기종, 「19세기 진묵 설화의 기록화와 그 의미」, 『한국불교학』 75집, 한국불교학회, 2015, 222면.

어리지만 깨끗한 행이 있다고 하여, 대사에게 佛壇을 호위하고 향을 받는 소임을 맡겼다. 그러나 대사에게 그 일을 맡기지 오래지 않아 密跡神將이 그 일을 관장하는 사람의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우리 여러 천신들은 다 부처님을 호위하는 神祇들인데, 도리어 어찌 감히 부처님께 예배 받을 수 있겠는가. 어서 빨리 저 향 받드는 사람을 바꾸어 우리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편안하게 하라.”<sup>34)</sup>

인용문은 『유적고』에 수록된 17편의 설화 중, 첫 번째 일화를 옮긴 것이다. 이 일화는 출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진묵이 봉서사에서 향을 받드는 소임을 맡을 때의 이야기로, 神衆壇의 밀적신장이 주지의 꿈에 나타나 향 받드는 사미를 바꾸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그 이유로, 부처를 호위하는 신중들이 도리어 부처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밀적신장의 발화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발화는 진묵이 부처의 화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3·4·6·7의 일화는 각각 山靈·金剛力士·羅漢이 등장하여 진묵의 부름을 받거나 진묵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 곧 제3화에서 산신령은 진묵의 명령으로 어머니를 괴롭히는 모기떼를 마을에서 쫓아버리고, 제4화에서는 진묵에게 술을 주지 않은 승려를 금강역사가 철퇴로 내려치고 있다. 그리고 제6화와 제7화는 각각 진묵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 하는 16나한의 모습과, 진묵의 명령으로 전주부의 아전을 도와주는 나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들 설화 역시 제1화와 마찬가지로, 진묵이 석가의 화신임을 나타내는 일화로 읽힐 여지가 있다. 산신령·금강역사·나한의 공경을 받거나 그들을 부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부처만이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적고』의 제9~17화는 전반부의 일화들처럼 신적인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대신, 유학자·계집종·마을 소년들·사냥꾼·식욕 많은 승려들

34) 草衣意恂, 『震默祖師遺蹟攷』 권상(『韓國佛教全書』 10, 878면)

과 같은 비교적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일화에서 진묵은 유학자가 빌려 준 책을 읽는 대로 버리거나(제9화), 유학자의 계집종에게 “아들을 낳고 싶지 않느냐”라는 흰소리를 하고(제10화), 생선국을 먹을 수 있느냐는 마을 소년들의 희롱에 끊은 술 째 마시기도 하며(제11화), 식욕 많은 대원사의 젊은 승려들에게 “이 절은 장차 7대 동안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저주를 퍼붓는다(제15화). 또한 진묵은 아래의 인용문처럼 소금이 필요한 사냥꾼들에게 시자를 시켜 소금을 갖다 주기도 한다.

어느 날 대사가 시자를 불러 말하였다. “이 소금을 봉서사 남쪽 婦谷으로 가져가거라.” “가져가서는 누구에게 줍니까?” 시자가 묻자, 대사가 말하였다. “그곳에 가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인데, 무얼 구태여 묻느냐?” 시자는 소금을 가지고 고개를 넘어 부곡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사냥꾼 몇 사람이 막 노루고기를 잡아 놓고는, 소금이 있었으면 생각하면서 먹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시자가 소금을 그들 앞에 놓자, 그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틀림없이 저 옥 노장이 우리가 배를 곯고 있는 것을 가련하게 여겨서 보내 주신 것이리라. 사람을 살려내는 부처님이 골짜기마다 계신다고 하더니,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인 것 같구나.”<sup>35)</sup>

인용문은 제12화를 옮긴 것으로, 소금이 없어 육회를 먹지 못하고 있는 사냥꾼들의 사정을 알고 진묵이 시자를 시켜 소금을 보내줬다는 내용이다. 이 일화는 진묵이 天眼通을 갖추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렇지만 이 일화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밑줄 친 부분을 통해 ‘부처님’에 대한 당시의 민중 또는 초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곧 ‘부처’란 중생의 사소한 불편거리도 같이 걱정해주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35) 草衣意恂, 『震默祖師遺蹟攷』 권상(『韓國佛教全書』 10, 879면)

진목이 먼 곳에서 해인사의 불을 꺾다는 제13화의 경우는, 다른 고승의 설화에도 보이는 유형이지만, 여타의 구비설화에서 물에 적신 솔잎으로 불을 끄는 것과 달리, 여기서는 ‘쌀뜨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 일화에서도 진목은 민중의 실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비록 전반부의 일화이지만 진목의 효심에 관한 제3화 역시 서민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다. 산신령을 시켜 여름철 모기떼의 극성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사건과, 진목 어머니의 묘소에 제사를 지내면 한 해의 농사가 잘 되었다는 일화는 소박한 민중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36)</sup>

결국, 『유적고』의 설화 제1~8화는 진목의 부림을 받거나 진목을 도와주는 산신령·금강역사·나한 등의 등장물 통해, 제9~17화는 유학자·계집종·사냥꾼·소년 등의 다양한 인물과 진목의 관계 맺음을 통해, 진목을 석가의 화신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 4. 불교 문헌설화의 내용적 경향성과 그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고려시대 문헌의 불교설화는 제재 및 중심 내용에 따라 ‘승려의 신이한 행적’, ‘불·보살상과 경전의 영험’, ‘불연국토와 불·보살의 상주’, ‘정토왕생과 현신성불’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승려들의 신이한 행적을 서술하고 있는 설화들은 대체로 승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치병·용궁강설·신이한 죽음의 모티프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모티프는 이상적인 승려상이라 할 수 있는 ‘고승’을 드러내는 징표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신이한 죽음’은 이상과 분별심에서 벗어난 승려가 바로 ‘고승’임을 암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불·보살상과 경전의 영험에 관한 설화는 불·보살에게 기도하거나 경전을 독송·서사한

36) 김기중, 앞의 논문, 231면.

결과로 인해 일어난 신이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수혜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영험이 구현되고 있는 후자와 달리, 전자의 설화들은 문제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그 문제가 불·보살상 앞에서의 기도로 해결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리고 영험의 주체로 설정되어 있는 관음보살은 승려의 모습으로 화현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

‘불연국토와 불·보살의 상주’의 경우는, 신라의 국토를 부처와 인연이 깊고, 불·보살이 항상 머무르면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신라의 낙산·오대산·보개산·영취산 등에 상주하고 있는 불·보살들은 대체로 진신 그대로가 아닌 모습으로 나타난다. 원효와 연희에게는 벼를 베고 있는 여인과 밭을 가는 노인으로, 신희거사와 효소왕의 앞에는 늙은 부인과 허름한 차림의 비구로 화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신성불’의 유형에서는 처자가 있었던 비구와 여자 종이 현재의 살아있는 몸 그대로 부처가 되고 있다. ‘부처의 나라’를 형상화하고 있는 불연국토와 불·보살 상주의 유형에 이어, 이러한 형상화의 귀결로서 ‘신라의 부처’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의 나라’와 ‘신라의 부처’는 조선시대 문헌의 사찰연기설화와 고승설화에서도 단절 없이 나타나고 있다. 곧 범어사·관음사·보덕굴의 연기설화에서 금정산·성덕산·금강산은 불·보살이 머무르고 있는 성지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리고 홍장·성덕과 진묵은 불·보살의 현신으로, 보덕은 살아있는 부처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라·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교설화 모두, 불·보살의 현신과 이 땅의 부처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들로 설정하고 있다. 홍장·성덕은 평범한 시골 처녀였고, 보덕은 아버지와 결식을 하던 민가의 여인이었으며, 진묵은 의승병에 참가하지도 않고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은 승려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설정은 부처와 보살이 평범한 군중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이 곳’에서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다는 ‘일체중생 실유불성’의 설화적·문학 적 형상화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의 불교 문헌설화는 ‘부처의 나라’와 ‘이 곳의 부처’를 형상화 하고 있는 내용적 경향성을 보인다고 하겠다. 이러한 특징은 설화의 본질 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을 상기할 때, 설화 전승의 주체인 승려와 불교 신자, 더 나아가 민중들의 ‘佛國’과 ‘成佛’에 대한 지향 내지 염원이 투영 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한편, 고려시대 문헌의 불교설화는 그 내용에 있어, 중국·일본의 불교 설화와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중국과 일본의 왕생설화는 대체로 왕생 을 하게 된 이유에 강조점을 두고 있을 뿐, 왕생 또는 ‘西昇’의 과정에 대 한 서술은 생략하고 있다. 다만 아미타불 및 성중이 내려와 왕생인을 맞 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37)</sup> 이에 반해, 『삼국유사』의 「포천산오비구」는 다섯 비구가 연화대에 앉아 설법한 뒤, 유태를 벗어버리고 큰 광명을 내 면서 서쪽으로 가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옥면 비엄불서승」과 「남백월이성」처럼 주인공의 현신성불을 다루고 있는 설화 역시 중국·일본의 불교설화에서는 그 예를 찾기가 힘들다. 또한 세 나라 의 불교설화가 업보윤회와 인과응보의 불교 교리에 근거한 것이면서도, 중국·일본의 불교설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冥府’와 ‘惡因惡果’의 모티 프<sup>38)</sup>가 신라·고려의 불교설화에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은 특징 역시 한국 불교설화의 형성·전파·향유 주체들의 관심과 지향이 현실의 ‘이 곳’과 ‘성불’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7) 이시준, 「일본 헤이안시대의 여인왕생설화에 관한 연구」, 『외국문학연구』 36호, 한 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09, 220-222면.

38) 안정훈, 「불교설화의 중국화에 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58호, 중국어문학연 구회, 2009, 562면; 정환국, 「불교 영험서사와 志怪」, 『민족문학사연구』 53호, 민족 문학사학회, 2013, 132-135면; 김정미, 「『일본영이기』의 불상영험담 고찰」, 『일본 학연구』 24집, 일본학연구회, 2008, 238-240면.

Abstract

##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Buddhist Written Folktales

Kim, Ki Jong

As an effort to explore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of Korean Buddhist folktales, this study examined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Buddhist stories in the literature of the Koryo and Joseon Dynasties. For this purpose, the themes and key contents of Buddhist folktales in Koryo literature were grouped into ‘monks’ mystic lives,’ ‘miraculous efficacies of Buddha and Bodhisattva statues and scriptures,’ ‘Buddha’s land and the presence of Buddha and Bodhisattvas,’ and ‘rebirth in the Pure Land and becoming an incarnated Buddha.’

Buddhist folktales from Joseon literature were examined mainly focusing on scripture related folktales, temple related ones, and monk related on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ontents of Korean Buddhist written folktales showed the tendency of configuring ‘Buddha’s State’ and ‘Buddha in this land.’ Considering that folktales were made up stories by nature, these stories reflect the pursuit of or yearning for ‘the Buddha’s Land’ and ‘becoming a Buddha’ among those who created, transmitted, and enjoyed Korean Buddhist folktales.

**Keywords :**

Buddhist folktales, written folktales, Samkukyusa, Beophwayeongheomjeon, scripture folktales, temple folktales, the Buddha’s Land, becoming a Buddha.

## 참고문헌

### □ 기본자료

- 김승호, 『한국사찰연기설화의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5.  
김영태, 『신라불교사상연구』, 신흥출판사, 1979.  
김현룡, 『한국고설화론』, 새문사, 1984.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5,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인권환, 『한국불교문학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장휘옥, 『해동고승전연구』, 민족사, 1991.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89.  
황폐강,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5.

### □ 논저

- 김기중, 「19세기 진목 설화의 기록화와 그 의미」, 『한국불교학』 75집, 한국불교학회, 2015, 219-252면.  
김승호, 「『唐 오대산 설화의 신라적 수용과 변이』, 『어문연구』 71권, 2012, 한국어문교육회, 126-146면.  
김영태, 「신라불교의 현신성불관」, 『신라문화』 1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4, 95-111면.  
김용덕·윤석산, 「한국 불교설화의 형성과 전승원리」, 『한국언어문화』 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86, 5-29면.  
김용덕, 「불교설화의 상징체계 연구」, 『비교민속학』 15집, 비교민속학회, 1998, 337-371면.  
남동신, 「『삼국유사』의 史書로서의 특성」, 『불교학연구』 16호, 불교학연구회, 2007, 45-67면.  
박병동, 「『석가여래십지수행기』의 이본 검토」, 『고소설연구』 1권, 한국고소설학회, 1995, 151-173면.  
박상란, 「조선시대 문헌 소재 불교설화의 양상과 의미」, 『불교학보』 43집, 동국대

- 불교문화연구원, 2005, 63-82면.
- 오경후, 「조선시대 사찰사적에 관한 검토」, 『경주사학』 24·25합집, 경주사학회, 2006, 348-371면.
- 오대혁, 「‘관음사연기설화’와 형성기 『심청전』의 불교사상」, 『한국어문학연구』 44집, 한국어문학연구회, 2005, 70-100면.
- 정환국, 「불교 영험서사와 志怪」, 『민족문화사연구』 53호, 민족문화사학회, 2013, 147-172면.
- 최래옥, 「한국 불교설화의 양상」, 『한국의 민속과 문화』 3, 경희대 민속문화연구소, 2000, 333-381면.
- 허홍식, 「사지의 간행과 전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788-802면.

접수일(2016. 4. 15), 심사일(2016. 4. 28), 게재확정일(2016. 5. 13)